



2013년 새로운 각오와 전략으로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사년인 올 해는 kt노동조합이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더불어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출범한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가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든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강도 높은 현장 순회를 실시하여 많은 조합원의 충고와 바람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지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에 노동조합은 더욱 큰 용기와 무한한 책임감을 절감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kt노동조합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2013년에는 어떤 난관이 가로막을지라도 정면으로 극복해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조합원 여러분의 소망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보다 멋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kt노동조합 창립 31주년을 맞아, 조합원 31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조합원이 꿈꾸는 일터, 조합원이 바라는 kt노동조합, 당신의 관심이 kt노동조합의 발전과 가능성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참여가 kt 조합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싹 틔웁니다. 희망을 전달하는 당신의 목소리, kt노동조합은 온 마음을 다하여 새겨 들겠습니다.



직무를 기준으로 현장 및 서비스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피복이 지급되는데, 현장에서 운용 및 공사업무를 하는 직원도 피복지급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춘계추계 체육행사 시 지원비가 개인별 20,000으로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인상해 주실까요?
본산지부 김하삼 조합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교육을 통해 중앙집행부의 방향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고요. 2012년에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현장 노조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임기 동안 모든 지부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네트워크운용단지부 유보열 조합원



11대 집행부가 "변화와 소통을 통한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슬로건으로 임진년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조합원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실천(대체휴일, 상품판매 근절 등)하는 집행부를 보며, 조합원도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013년에도 조합원이 말하기 전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 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013년 kt노동조합 화이팅!
광진지부 특별기동팀 최병준 조합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를 거울 삼아 냉철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기성찰 속에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2013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3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갖고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원지부 문현정 조합원



현장조합의 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 상급의 현장 방문 활동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연구인센티브가 더 좋은 성과와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연구원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우선네트워크연구소지부 권은주 조합원



노동조합 창립 31주년을 축하하며, kt노동조합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kt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북부사업지원센터지부 이명희 조합원



항상 과도한 업무와 영업 활동에 힘겹고 지치는데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에도 이처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를 더욱 많이 도입하여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은 직원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부 이현순 조합원



우리가 직장에 나와서 동료들과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은 바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표현 아닐까요. 조합원으로서 2012년 끝자락에서 우리 kt노동조합에 전하고 싶은 첫마디는 바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연초부터 "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내 맘에 다가온 것이 바로 근로복지의 향상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3년 기사년에도 올 해처럼 조합원이 느낄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모두가 노력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북부천지부 이춘우 조합원



고집해도 17년을 근속한 사랑하는 kt에 다니는 것에 예전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부러움 어린 눈빛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연락하면 LTE 얘기라도 꺼낼까봐 부담스러워 합니다. 새해에는 조합원이 행복해지는 일터, 그 속에서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사내복지 그리고 kt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포지부 류재호 조합원



kt노동조합 위원장님, 학자금 확충에 신경 써주세요. (현재 70% 수준보다 확충될 수 없을까요?) 아울러 급여인상도 부탁드립니다. 아자~
서청주지부 이득용 조합원



지난 2012년은 어느 해보다 조합원 권익보호 등 11대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는 위원장님의 의지를 결실로 이끌어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2013년 KTTU 아자!!!
강원고객본부지부 이명희 조합원



2012년, 우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도 빠른 안정을 찾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크게는 조직개선, 단체교섭, LTE 2위 탈환 등이 생각나고 작게는 퇴직연금 전환 및 의료비지원제도 변화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의 큰 골격을 세우셨다면, 2013년에는 내실을 기하는 2년 차의 모습을 설레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 당당하고 편만한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세요~ 들, 각종 변동된 복지제도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셋,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이 아닌, 회사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목소리를 "뒤타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지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도권서부고객본부지부 유미선 조합원



조합원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조합의 비전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급여인상 꼭 부탁드립니다.
충북고객본부지부 이상우 조합원



결혼, 출산 등 각종 경조사비에 부모님 회갑, 칠순, 자녀 학자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싱글 직원도 공평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독신 여직원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천지부 이영숙 조합원



2013년은 2012년 보다 한층 더 조합원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겠지요? 정운모 위원장님! 화이팅! 강연도의 뉘를 딱! 딱! 넣어 드립니다.
원주사업지원센터지부 채영병 조합원



2013년 기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조합, 우리 모두의 염원이요. 혼자서는 힘들고 외롭습니다.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춘천지부 정은호 조합원



젊은 층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 복지제도의 확충을 기대합니다. (사실 미취학 아동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청주지부 이관구 조합원



변화와 소통을 기조로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kt노동조합이 되어주세요. 또한, 온 세상에 뜻을 비추고 섬기는 기운으로 내달릴 2013년이 되길 바랍니다.
순천사업지원센터지부 정희태 조합원



현장 조직안정화와 고용보장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는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소망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해에도 늘 힘닿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남고객본부지부 서정규 조합원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2013년에도 조합원과 소통이 잘되고 건강한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포지부 고유미 조합원



우선 무급휴일근무 철폐 및 실질적 연차사용은 정말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점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업직원들의 시내출장 현실화 및 올해 임단협때 다고 생각해요. 이 점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1. 아울러 내년에는 여건만 된다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만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자산이 자회사로 분리되었는데 청사내 조합원들의 쉼터가 시에는 조합측과 항상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조합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회사가 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3. 클수도, 작을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정년퇴직하는 사무원에게 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지부 문미영 조합원



기사년에는 임금인상, 승진제도 부활로 조합원들의 활기찬 비상을 이루는 노동조합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 새롭고 웅대 한 포부로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남광주지부 김태균 조합원



60년 만에 돌아오는 기사년(축사)을 맞아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헌정을 자주 방문하여 조합원의 의견에 좀더 폭 넓게 귀를 기울여 내실 있는 노동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산지부 박성만 조합원



정운모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두루 다니신 결과로 휴일근무 정상화를 칭찬 드리고 싶네요. 기타 복무관련 분야는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지켜오고 있지만,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찾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단결" 머리를 두른 조합원부님을 보면서 희망을 찾아봅니다. 새해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당당하게 정진하는 2013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익산지부 유옥연 조합원



2013년에는 노사가 한 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욱 거듭나길 바랍니다.
둔산지부 윤상식 조합원



상생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중앙과 지방본부, 또한 지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천지부 김광준 조합원



조합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혜택이 많았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책 한 권으로 만들 어질 정도로 많지만, 조합원들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르기에 실질적인 수혜 가지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 인 가구 kt 내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삶을 계획함에 있어 자녀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을 젊은 층이 kt 내에서도 많이 늘어남을 고려할 때, 이들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주고객본부지부 박다애 조합원



조합원들의 기념일(결혼 기념일, 생일 등)에 서로 축하해주는 간단한 월별 행사를 하면서 단합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2012년 8월 조직개편 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13년에는 조합원 모임이 활성화되어 고객본부 전체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고객본부지부 김재형 조합원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 갑니다. 희망의 2013년 기사년에도 할일이 많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다 다양한 선진복지로 조합원과 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정년연장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족과 직장이 안정이 된다면 보다 살맛나는 일터가 되겠지요. kt 파이팅! kt노동조합 화이팅!
천안지부 강구옥 조합원



여성조합원들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아이들 입시도 뭐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회사일에 메디카 보니 가정주부들보다 정보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우리 kt의 여성 조합원들을 위해서 좋은 입시요강 같은 것을 이리저리 제공해주시거나 대치동 사론코치와 같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고객본부지부 강우정 조합원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로 출범된 제11대 집행부의 중앙위원장님과 조합간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되고 첫번째 임단협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공약사항 중 정년연장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인상, 복지제도 개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및 노후생활 안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60세 정년연장을 꼭 성취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kt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당당하고 멋진 노후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창원지부 홍성두 조합원